

인쇄하기

인쇄하기    창닫기



HOME    전국    인천

## 계양구, 관내 임산부에게 마스크 배부

안정호 기자    승인 2020.03.05 11:45



▲ 인천광역시\_계양구청

[인천 위클리오늘=안정호 기자]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5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임산부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배부하기 시작했다.

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7시까지 계양구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1인당 10매씩 배부하며 산모신분증 및 산모수첩을 지참하면 된다.

미등록 임산부는 효성평생건강센터 및 장기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.

또한,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해 마스크 대리 수령 가능하며 마스크 배부는 관내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마스크 배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.

한편 계양구는 인접한 부평구에서 코로나19 3번째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 실시하고 손 소독기를 480여 개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식품·공중위생업소에 손소독제를 지급했다.

또한, 2월 초 선제적으로 도서관,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휴관에 이어 3월부터 공원 및 녹지 내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용 중단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.

안정호 기자 etc@onel.kr

<저작권자 © 위클리오늘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